남부대 최선호·정주영 3관왕 명중

대학생 사격대회 50m 소총 3자세·복사 부문

개인·단체전 우승 휩쓸어…이상진, 개인전 銀

〈최선호〉 〈정주영〉

남부대가 '사격 명문'임을 다시 입증했다.

남부대는 지난 3일 전북임실사격장에서 막을 내린 제22회 대학연맹기 전국대학생사격대회에서 명사수 정주영과 최선호의 '3관왕 명중'에 힘입어 50m 소총 4개 부문을 휩쓸었다.

먼저 50m 소총 3자세 단체전에서 남부대는 이상진·정주영·최선호·안재성이 출전해 3424점을 쏴 한국체대(3410점)·경남대(3382점)을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50m 소총 복사 단체전에서도 최선호·정주영·최용준·최보민이 1759점을 합작해 경남대(1749점)와 한국체대(1740점)를 무려 10여점 이나 앞서며 우승했다.

국가대표인 최선호는 50m 소총복사 개인전에서 692.8점으로 금메달을 따 이번 대회 3관왕의 주인공이 됐다.

정주영도 50m 소총 3자세 개인전(1240.8점)에서 금메달을 추가해 3관왕 대열에 합류했다. 정주영은 50m 소총 복사 개인전에서는 동메달을 기록했다.

팀 맏형인 이상진은 50m 소총 3자세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달 31일 공기소총 단체전에서 3위를 기록한 남부대는 이로써 이번 대회에서 금 4, 은 1, 동 2개를 획득하는 뛰어난 기량을 발휘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3관왕을 기록한 최선호는 중·고교 땐 성적을 내지못하다 대학에 와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 지난해 태극마크를 단 전형적인 대기만성형이다. 정주영도 냉정한 성격으로 사선에 서면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는 노력파 선수이다.

창단 6년째인 남부대 사격팀은 지난 동계훈련 중 하루 6시간씩의 고강도 훈련을 통해 올 시즌을 대비했다. 이들은 모형총으로 1시간씩 사격자세를 잡으며 집중력을 키웠고, 하루 1인당 50발 이상을 쏘며 실전훈련에 구슬땀을 흘려왔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광주 산월초 또 아쉬운 준우승

전국봄철종별배드민턴리그전

반천초에 1-3 패…'원천배' 설욕 불발

광주산월초가 2010 구미새마을전국봄철종별배드민턴리그전에서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다.

산월초는 지난 3일 구미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린 여자초등부 결승에서 '강호' 울산 반천초를 맞아 선전했으나 1-3으로 패하고 말았다.

이로써 산월초는 지난 2월 원천배 결승에서 반천초에 패했던 아픔을 설욕하지 못하고 다시 '2인자'에 만족해야 했다.

이날 산월초는 현 주니어대표이자 주장인 김향임(6년)이 첫 주자로 나서 선전을 펼쳤으나 상대 김가은에게 1-2로 고배를 들며 기선제압에 실패했다. 이어 두번째 단식에 나선 박상은(6년)도 반천초 지정빈에게 0-2로 져 산월초는 벼랑 끝에 몰렸다.

게임스코어 0-2로 폐색이 짙던 산월초는 세번째 김향임·송윤아(6년) 조가 나선 복식에서 백승희·황수민 조를 가볍게 2-0으로 제압하고 막판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는 듯 했다. 하지만 네번째 복식에 나선 박상은·서예진(5년) 조가 김가은·지정빈 조에 0-2로 패해 대회 패권을 내주고 말았다.

조별 예선 5경기를 모두 이기면서 조 1위로 4강에 진출한 산월초는 이날 열린 준결승에서 경북 청송초를 3-0으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이세돌 10개월만에 결승行

비씨카드배 4강전 김기용 꺾어

이세돌이 비씨카드배 세계대회 결승에 올랐다.

이세돌 9단은 지난 3일 성동구 홍익동 한국기원 1층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회 비씨카드배 월드바둑챔피언십 준결승전에서 김기용 4단을 맞아 흑으로 237수만에 불계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일방적인 승리가 될 것이라는 주변 평가와는 달리 중반까지 고전에 빠졌던 이세돌은 난전으로 이끄는 특유의 '진흙탕 작전'으로 역전승을 거뒀다.

이세돌이 세계대회 결승에 오른 것은 작년 6월12일 제21회 TV아시아 결승 이후 10개월만이다.

이세돌은 4일 벌어지는 창하오 9단-박정환 7단 승자와 오는 24일부터 5판 3선승제로 우승을 다툰다.

/연합뉴스

후지쓰배 10일 개막

한국 8명 2연패 도전

한국의 흑백전사들이 10일부터 14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후지쓰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1988년에 창설돼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후지쓰배는 같은 해에 만들어진 응씨배가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것에 비해 매년 빠짐없이 열려 올해로 23회째를 맞는다.

한국은 지난 대회 우승자인 강동윤 9단을 필두로 총 8명이 출사표를 내밀었다.

우승상금은 1500만엔(약1억8000만원)이다.

/연합뉴스

박주영이 4일 프랑스 몽펠리에 라 모손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랑스 프로축구 정규리그 몽펠리에와의 경기에서 몸을 날려 헤딩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파 축구 '우울한 주말'

박지성·이청용·박주영 선발 출전 불구 골맛 못 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이청용(22·볼턴 원더러스)이 선발 출전하며 선전을 펼쳤으나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다. 프랑스 프로축구 박주영(25·AS모나코)도 4경기 연속 선발출전했지만 공격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다.

박지성은 3일(이하 한국시각)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벌어진 2009-2010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첼시와 홈경기에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로 나와 71분을 뛰었다.

맨유는 그러나 박지성의 활약에도 첼시에 1-2로 지면서 리그 선두 자리를 내줬다.

박지성은 전반 25분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돌파를 시도하다가 지르코프의 발에 걸려 넘어졌으나 주심이 반칙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해 페널티킥이 선언되지 않았다. 박지성이 항의해봤으나 소용이 없었다. 박지성은 0-1로 뒤진 후반 26분 페데리코 마케다와 교체돼 나갔다.

이청용은 4일 영국 볼턴의 리복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애스턴 빌라와 홈경기에 오른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77분 동안 뛰었다. 그러나 팀은 결국 0-1 패배를 당했다. 이청용은 지난 14일 위건 애슬레틱과 홈경기에서 어시스트를 올린 뒤로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추가하지 못했다.

한편 박주영은 이날 새벽 프랑스 몽펠리에 라 모손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몽펠리에와 2009-2010 프랑스 프로축구 정규리그 31라운드 원정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출전했지만 끝내 골 맛을 보지는 못했고, 후반 44분 교체아웃됐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연합뉴스

봅슬레이 '기적의 은메달'

아메리카컵 8차대회 쾌거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일본을 제치고 최종 결선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달성했던 봅슬레이 대표팀이 이번에는 아메리카컵 마지막 대회에서 사상 최초로 국제대회 은메달을 차지하는 기적을 일궈냈다.

봅슬레이 대표팀은 4일(한국시각) 새벽 미국 레이크플래시드에서 막을 내린 2009-2010 국제봅슬레이연맹 아메리카컵 8차 대회 4인승에서 1, 2차 시기 합계 1분55초42를 기록, 미국(1분55초34)에 0.08초 차로 우승을 내주고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표팀은 지난 2008년 1월 아메리카컵 2차 대회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면서 국제대회 첫 메달의 기쁨을 누렸고, 지난해 4월 아메리카컵 8차 대회에서도 동메달을 따냈지만 은메달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광주 상무 홈 승리 불발

K-리그 6R 대전과 1-1 비겨

광주 상무의 홈 승리 신고가 불발에 그쳤다. 광주 상무가 지난 3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전 시티즌과의 K-리그 6라운드 경기에서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홈경기 첫 승 신고가 무위게 그치면서 상무는 최근 5경기 연속 무승(3무 2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대전이 먼저 골문을 갈랐다. 전반 30분 대전 고창현이 프리킥 찬스에서 오른쪽 골 포스트를 노려 골을 성공시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상무의 거센 반격이 이어지던 후반 24분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동점골이 터졌다. 대전 신준배가 페널티 에어리어내에서 김정우의 드리블 돌파를 막다 파울을 기록했다. 최원권이 페널티킥 상황에서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키며 승부는 1-1 원점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후 추가골이 터지지 않으면서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다.

광주는 승점 1점을 추가하는데 그치며 ■에 처져있고, 선제골을 지키지 못한 대전도 2무4패로 그대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女 하키 6회연속 월드컵 본선

한국 여자하키대표팀이 제12회 여자월드컵 예선에서 미국을 꺾고 6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다.

한국은 4일(한국시각)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미국과 대회 1,2위전에서 김종은이 2골을 터뜨리며 3-1로 이겼다.

한국은 이날 승리로 이번 대회 1위에만 주는 여자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얻었다. 한국 여자대표팀은 1990년 시드니대회 때 처음 월드컵 무대를 밟고서 오는 9월 아르헨티나 대회까지 6회 연속 월드컵에 진출하는 쾌거를 거뒀다.

/연합뉴스